

일본, 유럽시장 등 세계 곳곳에 한국 세척기술을 심는다

초음파세척기 전문업체 일성초음파산업(주)

일성초음파산업(대표 · 천홍현/www.isucl.co.kr)는 1985년 설립 이래 23년간 광학전문 세척기 한 분야에
서 축적해온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업체로 입지를 굳혔다. 까다롭기로 소
문난 일본의 호야를 비롯한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일성초음파산업은 세계적인 광학세
척기 전문업체로의 힘찬 도약을 시동하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 그동안 생산해온 자사의 초음파세척기 제품 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한 천홍현 사장

우리 속담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을 지칭할 때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쓴다. 제조업에도 그런 '감초' 같은 제품이 있기 마련이다. 초음파세척기가 그것.

“공들여 제품을 잘 만들어놓고도 세척이 잘못 되어 불합격 판정이 날수도 있는 것처럼 세척은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난 23년간 오직 광학분야의 초음파세척기 제조 외길을 달려온 천홍현 사장은 특히 광학분야에서 세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모든 산업이 첨단화·고급화 추세로 가면서 세척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졌으며, 특히 정밀광학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 의 싸움이 제품의 불량과 양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분야에서 세척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음파세척기의 원리는 특수 세제가 이물질들을 부풀려주면 초음파로 진동을 주어 이물질들이 떨어져나가게 한다.



세척기의 종류는 대상 품목의 종류, 공정단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성초음파산업에서는 오랜 기간 제품개발에서 쌓아온 독자적인 초음파세척기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업체의 요구에 따라 1:1 맞춤형 초음파세척기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찾아보면 국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세척기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일성초음파산업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오직 광학분야쪽의 세척기만을 주로 생산해왔다. 카메라 렌즈를 비롯하여 안경렌즈, LCD, 모바일폰 등 각종 디스플레이 장비 등과 관련한 세척기가 주력 품목이다.

그중 주로 국내 광학렌즈업체 및 안경렌즈업체 등에 초음파세척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내수보다는 해외수출쪽의 비중이 크다. 전체 매출의 7~8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할 만큼 해외시장을 무대로 성장환경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다.

초기 일본 아사히광학에 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세계 광학선도업체인 일본 호야, 안경광학의 선두주자인 프랑스 에실로, 독일 칼자이스 등 글로벌 회사들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이미 제품력에서, 기술력에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글로벌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일본 호야 등 세계 유력 광학업체에 제품 공급, 수출업체로 '우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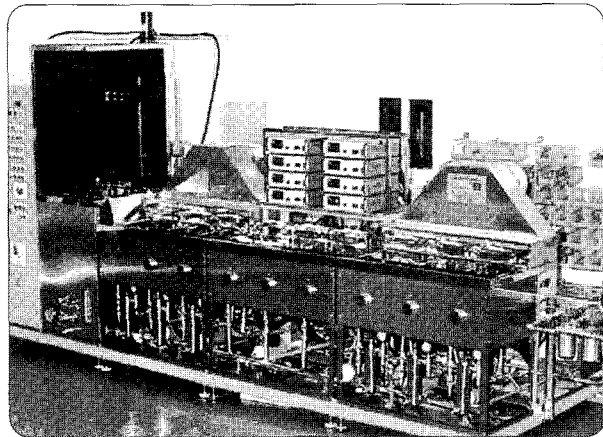
일성초음파산업은 사업초기부터 광학분야 전문 세척기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안경렌즈분야쪽의 호조로 회사성장의 배경을 만들었다. 이후 본격 광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수출업체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2000년 2월 인도에서 있었던 산업전시회 참가 이후 일본 아사히광학에 제품공급을 하고 나서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1997년부터 안경광학분야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수출을 시작했지만 광학렌즈분야는 2001년부터 물꼬가 터졌는데 그것도 값진 대가를 치른 후의 일이었다. 초기 일본 아사히광학의 중국공장에서부터 첫주문받은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천홍현 사장과 엔지니어들은 중국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제품개발에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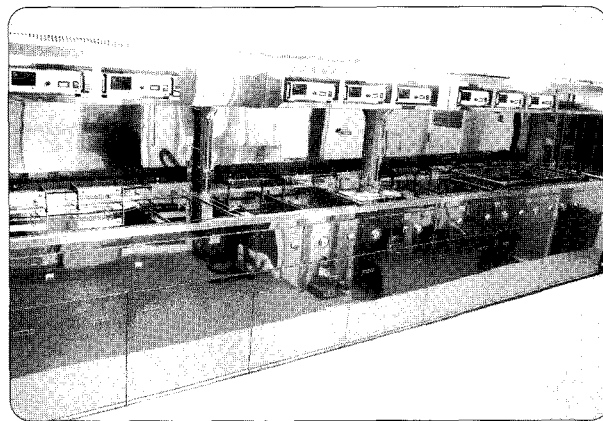
달렸다. 우여곡절 끝에 한달간 제품과 씨름을 벌인 후에야 아사히광학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냈다. 이후 중국에 있는 다른 광학업체로 30대 이상이 팔려나가며 일성초음파산업의 초음파세척기가 기술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니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일성초음파산업 사무실 벽면에는 이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을 대변해주는 여러 제품 사진과 지적재산권 증명서들이 가득한데, 당시 첫 작품인 초음파세척기의 사진 및 실용신안등록증도 걸려있다. 아마도 이를 통해 천홍현 사장이하 직원들이 항상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첫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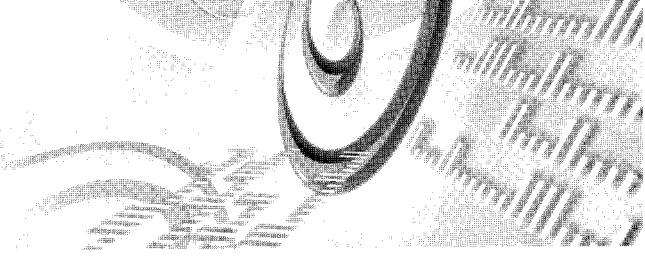
천홍현 사장은 "아사히광학 납품을 기점으로



▶일성초음파산업이 초음파세척기 기술우위에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일본 아사히광학에 공급했던 반자동식 IPA세척기



▶국내 H사에 납품한 IPA세척기



당시 2~30%이던 수출 비중이 7~80%까지 올라와 국내와 해외수출 비중이 반전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계속해서 세계 속에 일성초음파의 기술을 심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사는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등 선진국들의 공장이 진출해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과 이집트, 호주,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회사로서 나무랄 때 없이 국제적인 C와 S마크 획득은 물론, 얼마 전에는 ISO 9002와 14000의 최종 심사를 마쳤다.

전체 직원 30여명에서 해외쪽의 비중이 크다 보니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만 3명이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을 뺀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다.

천홍현 사장은 “세척기 특성상 무조건 주문만

받아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목적, 세척방식, 세척후의 결과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해야하는 만큼 일성초음파에서는 사용업체와의 정보교류에 주안점을 두고 1:1맞춤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한국시장에도 전파하여 결국 국내시장의 산업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광학세척기 전문업체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일성초음파산업의 목표는 세계적인 광학세척기 전문업체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부터 일본 호야와 같은 광학선두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한 것은 이 회사가 목표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천홍현 사장은 “호야와의 거래를 시발점으로 하여 광학선두업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회사의 기술력을 더욱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 회사는 안경광학분야에서도 이미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애설로와 독일 칼자이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타고 많은 업체들로부터 러브 콜을 받고 있다.

현재 일성초음파산업의 연매출은 45억 원 정도이며 한 해에 10억씩 증액목표를 갖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설비분야쪽의 위축도 있지만 입소문을 타고 해외업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주문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했음을 세계도 인정했음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천홍현 사장은 세척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중의 하나가 “국내업체들의 세척에 관한 인식자체부터 낮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세척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며 “산업의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세척기술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만큼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객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일성초음파산업의 작업장 광경



▶천홍현 사장이 작업장을 둘러보며 직원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있다.